

두암동 3남매 화재 참사, 실화 아닌 엄마의 방화

경찰 초동수사 부실 논란…검찰이 뒤엎고 방화치사 기소
가정 불화에 인터넷 물품사기로 변제 독촉 받자 범행 판단
작은방 안 최초 발화 밝혀내…휴대전화 목록도 결정적 증거

광주북부경찰이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결론내린 두암동 삼남매 사망 화재사건 <광주일보 1월 2일자 10면>이 검찰조사에서 친모의 방화로 뒤집혔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인 친모의 휴대전화 분석 등 기초적인 수사기법조차 배제하고, 유족 친모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것으로 드러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배장대 부장검사)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정모(여·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주건조를 방화치사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죄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살인죄보다 무거운 혐의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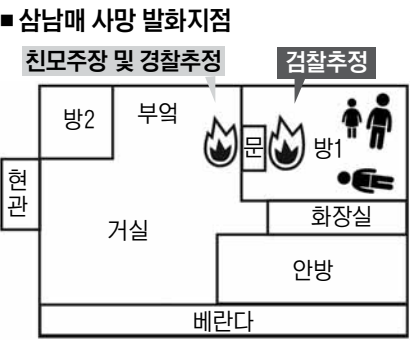
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편과 이혼한 정씨가 이날 새남자치친구와 심하게 다툰 상황에서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 생활고, 인터넷 물품 대금 사기 관련 잦은 변제 독촉을 받자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화재를 정씨의 부주의로 보고, 실화로 결론을 내린 경찰의 수사 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검찰이 친모를 방화범으로 지목한 결정적인 이유는 최초 발화 지점의 차이다.

친모 정씨는 아이들이 숨진 작은 방 밖에서 불이 났다는 진술을 고수하고 있으나, 검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작은방 안쪽이 최초 발화지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찰청 과학



수사1과는 최근 화재 감정을 통해 “발화 지점은 아이들이 있던 작은방 안쪽 출입문 문턱에서 시작돼 방 내부를 전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치된 감정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또 정씨가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났다’라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에도 주목했다. 대검 과학수사과는 정씨가 담뱃불을 떨어 화재를 냈다고 주장한 이불인 이른바 극세사 이불(합성 솜이불)에 대한 화재반응 등을 실험한 결과, 담뱃불로 인한 착화 자체가 불가능한 재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정씨는 검찰에서 “작은방 바깥에서 담배꽂이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장난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고, 처음에는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진화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며 사실상 방화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정씨의 휴대전화 목록도 방화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정씨는 이날 집에 들어와 아이들 옆에서 잠시 잠든 사이 불이 나 번졌다고 진술했으나, 정씨의 카가오톱 대화는 이날 새벽 1시 51분 집안으로 들어온 뒤 2시 31분까지 1분 단위로 남편과 새 남자치친구, 인터넷에서 분유사기 피해를 끼친 여성 등과 이어졌다.

정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51분 이후 2시 26분 사이 어느 시점에 아이들 옆에서 잠시 잠이 든 사이 화재가 났다는 것인데, 정씨는 당시 잠을 자지 않고 카가오톱 대화를 이어간 것이다.

정씨는 또 이날 분유사기 피해자에게 “아이들과 자살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물론 검찰이 앞으로 풀어야할 의혹도 남

아있다. 검찰은 우선 화재로 형체조차 없이 타버린 아이들 옆에서 발견된 정씨의 휴대전화에도 의문을 보이고 있다. 아이들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불에 탄 반면 아이들 사이에서 발견된 정씨의 휴대전화는 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원형 보존이 잘 돼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이 꺼져가는 상태에서 정씨가 통화내역 등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현장에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씨의 옷 중 유일하게 일 부분이 불에 탄 검은색 패딩점퍼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신고 있던 (불에 약한)스타킹조차 멀쩡했는데, 불이 난 곳이 아닌 안방에 벗어놓은 패딩이 탄 점이 석연치 않다”면서 “정씨는 자신의 양손등과 엄지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패딩과 화상이 방화와 관련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연기 배출 막은 불법 비가림막 밀양 세종병원 참사 키웠다

비상발진기는 용량 미달
사망 39명으로 늘어
병원장 등 3명 피의자 전환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병원 측이 설치한 불법 가림막 시설이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이 수년 동안 불법증축을 거듭했고 병원의 비상발진기도 용량 미달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9일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병원장 석모, 이사장 손모, 총무과장 김모(38)씨 등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들 셋은 현재 모두 출국금지 상태다. 이 중 총무과장은 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인물이다.

경찰은 병원 측이 수년간 불법 증·개축을 강행한 점이 화재가 확산한 경로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병원 측이 불법 설치한 ‘비가림막’ 시설이 불이 난 세종병원 밖으로 연기가 배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가 사상자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최치훈 수사본부 과학수사계장은 “가림막이 없었다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을 것인데, 가림막이 일종의 지붕 역할을

해서 연기가 병원으로 다시 유입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가림막이 통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한수 경찰 수사본부장은 “일단 (불법 건축물 등 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병원이 이행강제금만 내며 불법 증축을 수년간 거듭해온 데 대해 당시 밀양시 건축 허가 담당자 중 1명을 조사했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밀양시청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에 설치된 비상용 발전기 용량이 22kW였던 점도 주목하고 있다. 세종병원 전체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려면 107kW 용량의 비상용 발전기가 필요하다고.

김한수 경찰 수사본부장은 “상용 발전기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사망자 3명의 사망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80대 환자 1명이 또 숨진에 따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는 모두 39명, 부상자는 총 151명으로 집계됐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어린이집 원생들 화재 대피 훈련
2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북구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직원들의 지도로 화재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북구는 최근 충북 제천, 밀양 화재참사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자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중소병원 재난관리 사각지대…인증평가 신청 17.7% 불과

화재 참사가 벌어진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의 인증평가 신청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인증평가 신청률은 50.9%에 달하지만, 의무 인증기관을 제외한 인증평가 신청률은 17.7%로 떨어졌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3865개 중 1968개가 인증평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

체에서 의무 인증기관을 제외한 2293개 의료기관 중에서는 406개만이 신청했다. 평가를 통해 인증된 의료기관은 총 1734개다.

의료기관 인증 의무기관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이다. 복지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전공의 수련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은 의료기관 인증이 지정 시 필수요건이어서 사실상 의무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용의자 3명 공모 인정

형량 높여 징역 10~15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공모·합동범행 사실이 인정돼 형량이 높아졌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처럼 공모·합동관계 사실이 추가되면, 범죄사실이 동일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물론 타인이 저지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별도로 반영돼 형량이 높아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분이 두터운 점,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각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상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선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현장에 노끈 흘린 전선도둑 ‘덜미’

○~50대 남성이 섬마을에 전봇대(높이 3~4m)에 올라가 구리 전선을 훔쳤으나 현장에 흘린 노끈에서 DNA가 검출되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29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김모(51)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께 보성군 노동면의 도로 옆에 세워진 전봇대에 올라가 중성선(전류가 통하지 않는 예비 전선) 360m를 절단기로 자르는 수법 등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보성·나주·곡성·장성·담양·함평 일대에서 24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 전선을 훔쳤다는 것.

○~CC-TV 등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노끈에서 김씨의 DNA를 채취해 검거했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았다”며 선처를 호소. /보성=김용백기자 kyb@

토지 매매 (금호동) 상무지구에서 서광주역 가는길 (도로 접합) 현재 자연녹지 ① 계획도로 확장예정 ② 진입도로 용이(자제창고,식당 가능) ③ 평당 240만 ◆ 매매가 : 13억5천8백 010-6670-9800 062)382-5500	무안 펜션 경매 추천 무안 망운 리조트 (툼머리해수욕장) 광주에서 40분 최고물건 임대(월2000만 가능) 토지 614평 건물 145평 (아파트형, 객실 13개) 경매일:1월29일 감정가 11억 5천 최저가 6억 4천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① 북구 신웅동 용두주공아파트 (24평) 감정가 1억3천3백 → 최저가 9천3백 ② 북구 일곡동 현대아파트(24평) 감정가 1억4천2백 → 최저가 9천9백 ③ 서구 생촌동 광명하이츠 (상가) 감정가 5천3백 → 최저 2천9백 [사무직 (여)경리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서구 내방동 (건물) 토지:80평 건물:114평 감정:3억6천 → 최저:3억6천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 3) 광산구 수원지구 (원룸빌딩) 감정:7억2천 → 최저:7억2천 4) 나주 성북동 (근린주택) 감정:32억 6천 → 최저:18억 2천 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9억6천 → 최저:6억7천 6)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2억6천7백 → 최저:1억8천7백 7) 전북 군산시 평화동 (근린상가) 감정:12억1천 → 최저:4억1천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5억 → 최저:3억8천 9) 화순 도곡면 천암리 (무인텔) 감정:37억4천 → 최저:20억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6억5천 → 최저:2억3천 11) 북구 신안동 (주유소) 토지:232평 건물:114평 감정:14억5천 → 최저:14억5천 A.P.T · 주택 · 공장 · 토지 (기타) ① 남구 진월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2억1천2백 → 최저 1억4천8백 ②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③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비아파트(36평) 감정 2억9천 → 최저2억 ④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 아파트 (24평) 감정 2억 → 최저 1억 4천 ⑤ 북구 운암산교아루렉시안 (3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⑥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75평) 감정 5억8백 → 최저 3억6천 ⑦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56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⑧ 서구 마록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9천1백 ⑨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4억 ⑩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대지) 감정 7백 → 최저 5백 ⑪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숙박,콘도) 감정 11억4천5백 → 최저 7천6백 ⑫ 전남 영암군 삼호읍(공장) 감정 14억8천 → 최저5억3천 010-6670-9800 062)382-5500
--	---	--	---